

## 예비 한국어 교사<sup>1)</sup>의 모의수업 연구\*

-온라인 과정생을 중심으로-

김 지 혜

### Abstract

**Kim Jihye.** 2015. 12. 31. **A Study on Teaching Practice: Pre-service Korean Teachers in an Online Course.** *Bilingual Research* 61, 45-66.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uggestion on Korean practicum for improving the competency and capability of future Korean teachers.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of the two-semester-long Korean teaching practice done by 166 online students at K Cyber University in Seoul, this study was able to find several common features from the students. First of all, believing that a Korean class was a theoretical class, rather than a practical communication class, the students, who are future Korean teachers, tended to focus more on delivering grammar or morphological knowledge. In addit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ir students were adults, the pre-service Korean teachers were too authoritative or over-managed the class when their students' Korean skills were lower than expectation.

The research has found that such attitude comes from a lack of pre-service teachers' understanding on the aim of teaching Korean, Korean teaching theory, Korean education environment, and Korean classrooms. From the finding, the researcher suggests Korean practicum courses, as well as online courses, include an aptitude test, a personality test, a self-checklist, and a small group workshop.

Then future Korean teachers can clearly be aware of the aim of Korean

- 
- 1)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 혹은 대학원생,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수강생 모두를 한국어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 교사의 길로 들어선 자들로 보고 '예비 한국어 교사'라고 칭하도록 하겠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education, check themselves for proper Korean teachers, and extend their understanding about Korean education through peer cooperati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Korean teacher training(한국어 교사 교육), Pre-service Korean teachers(예비 한국어 교사), Korean practicum(한국어교육실습), Korean practice teaching(한국어 모의수업)

### 1. 서론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재 출판의 확대를 비롯해 한국어 교원 양성도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 교원 양성은 2005년 <국어기본법>의 시행, 2010년 <국어기본법시행령>의 개정과 <국어기본법시행규칙>의 제정에 의해 현재까지 국가(국립국어원)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 및 대학원, 기타 교육 기관에서도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어 교원 자격을 받은 사람은 1급 345명, 2급 12,335명, 3급 6,567명, 총 19,247명에 이른다.<sup>2)</sup> 이들은 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를 포함한 학위과정이나 양성과정과 같은 비학위과정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2) 한국어 교원 개인자격심사 결과(2015.06.기준)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제공.

연도	심사 신청자	1급 합격자	2급 합격자	3급 합격자	총 합격자	불합격자	합격률	학위과정별 분류			
								학위 (2/3급)	비학위 (3급)	간역 (1/2/3급)	
2006년	1차(2006.07.07)	1,536	-	209	537	746	790	48.57%	280	139	327
	2차(2006.11.17)	218	-	60	62	122	96	55.96%	66	9	47
	총계	1,754	-	269	599	868	886	49.49%	346	148	374
2015년	1차(2015.04.27)	1,961	34	1,714	104	1,852	109	94.44%	1,712	76	64
	총계	1,961	34	1,714	104	1,852	109	1	1,712	76	64
합계	21,377	345	12,335	6,567	19,247	2,130	90.04%	12,280	5,523	1,443	

한국어 교사를 희망하는 예비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문화’의 4가지 영역의 이론 교육과 더불어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 중 ‘한국어교육실습’은 예비 한국어 교사로 하여금 한국어 교육 현장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한국어 교사가 적성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교사로 준비되기 위한 과정으로 전체 교육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채완 2006, 김유미 2009, 손상미 2010, 진정란 2011, 송향근 2012, 최정순 2012, 이정숙 2013, 진정란 2014, 기준성 2015).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모의수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어교육실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한다. 특히, 모의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온라인 교육 과정에서의 모의수업을 다각도로 관찰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두 적용 가능한 예비 한국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 모의수업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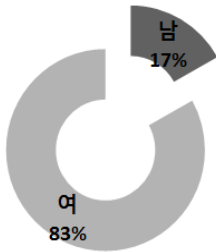
## 2. 연구 대상 및 방법

### 2.1.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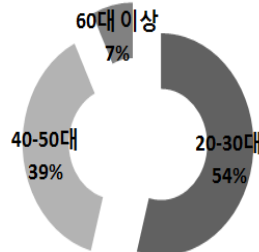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소재 K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대상으로 2014년 2학기와 2015년 1학기 수강생 166명의 모의수업을 관찰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166명의 수강생들은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며, 한국어교육실습에 필요한 필수 이론 과목들을 이수한 상태였다. 수강생들의 연령, 성별, 직업, 거주 지역, 학위 취득 여부 등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데, 현직 교사나 강사처럼 교육 관련 직업을 가진 수강생은 전체 수강생 중 약 25% 정도이며, 한국어 교육 경험자는 13% 정도였다. 한국어 교육 경험자들은 결혼이주여성

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봉사 활동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거나 체류 중일 때 기업체 혹은 교회 등의 단체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봉사 활동이나 개인 과외의 형식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해 체계적으로 교안을 작성하거나 교육 과정을 설계해 본 적이 없으며, 기존에 출간된 교재를 구입하여 교재의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대부분 프리토킹의 형식으로 언어 교환을 하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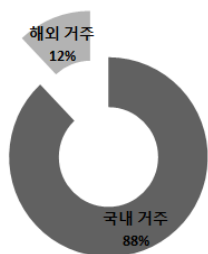
수강생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66명 중 여자가 83%, 남자가 17%를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54%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온라인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목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20-30대의 경우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40-50대의 경우에는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생들이 많았다. 연령별 분포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60대 이상의 수강생이 많다는 것인데, 이들은 퇴직 후 국내 혹은 국외에서 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었다. 교육 공무원 출신이나 일반 공무원 혹은 종교계 종사자들이 대다수였다. 온라인 과정의 특성상 해외 거주자가 12%에 달했으며, 국내 거주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예비 한국어 교사로서 한국어 교육을 경험해 본 수강생은 전체 중 13%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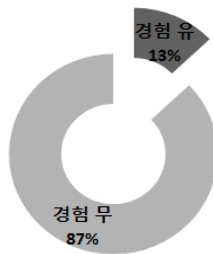
<그림 1> 수강생의 성별 분포



<그림 2> 수강생들의 연령 분포



<그림 3> 수강생의 거주 지역 분포



<그림 4> 수강생의 한국어 교육 경험

## 2.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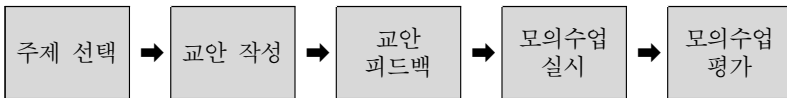
K사이버대학교의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은 아래 <표 1>과 같이 총 15주로 진행되며, 시험을 제외하고 13주 동안 한국어 교사,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수업의 구조, 학습자 숙달도별 한국어 수업, 언어 기능별 수업, 교육 자료 개발, 교안 작성에 대해 학습하고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모의수업을 시연한 후 평가를 받게 된다. 참관 수업 및 모의수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교수법<sup>3)</sup>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된다. 4주차와 10주차, 11주차에는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시한 수업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공하여 수강생들이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현장을 관찰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10주차에 있는 기능 수업의 실체는 다른 오프라인의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이나 온라인 과정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말하기 수업 이외에 수강생들이 궁금해 하는 이해 수업, 즉 읽기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교수학습 활동이 적절히 섞여 구성되는 대표적인 혼합학습이다. (진정란, 2014:213)

<표 1> K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실습 주차별 강의 일정표

주	강의 내용
1	한국어 교사 이해하기
2	한국어 학습자 이해하기
3	한국어 수업의 구조 이해하기
4	한국어 초급 수업의 실제
5	교안 작성법
6	한국어 기능수업1 이해하기
7	한국어 기능수업2 이해하기
8	중간고사
9	교육 자료 개발 이해하기
10	한국어 기능수업의 실제
11	한국어 중·고급 수업의 실제
12	모의수업1
13	모의수업2
14	교안 및 모의수업 피드백
15	기말고사

모의수업 준비는 5주차부터 시작되어, 다음 <그림 5>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그림 5> 모의수업 진행 흐름도

5주차에 실시되는 교안 작성법 수업을 들은 후, 수강생들에게 모의수업을 위한 주제를 제시한다. 주제4)는 <표 2>와 같이 3가지로 수강생들

4) 모의수업을 위한 주제는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에서 제안한 한국어

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후 먼저 교안을 작성하게 된다. 실제 모의 수업은 도입에서 연습까지의 단계만 시연을 하나, 교안은 도입에서 마무리까지 완성된 1차시의 수업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2> 모의수업 주제

	1	2	3
숙달도	초급		
주제	위치	음식	가족
기능	물건의 위치를 말할 수 있다.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가족을 소개할 수 있다.
어휘	앞, 뒤, 옆, 위, 아래/밑, 사이, 건너편	비빔밥, 불고기, 갈비, 냉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계탕, 갈비탕, 김밥, 칼국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여동생, 남동생, 남편, 아내, 아들, 딸
문법	-에 있다/없다	-(으)래요	-(으)시 (높임)

수강생들이 교안을 작성하고, 온라인 과제방에 제출하면 담당 교수는 평가와 함께 피드백 내용을 정리해 첨삭의 형식으로 수강생에게 제공한다. 평가는 작성한 교안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학습 목표, 교수 방법, 평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지, 수업의 각 단계에 적절한 교수-학습 활동이 배치되어 있는지, 문법이나 어휘 설명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는지, 수업 방법과 자료는 수업의 목표와 잘 맞는지,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피드백 또한 이러한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수정하거나 보충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초급 숙달도의 주제와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급 교재를 살펴 선정하였다.

교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수강생들은 모의수업 준비<sup>5)</sup>에 돌입한다. 모의수업은 크게 정해진 장소에 와서 담당 교수와 동료 수강생들 앞에서 직접 시연을 하는 방식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있다. 모의수업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의 온라인 과정 수강생들의 경우에는 동료 수강생들이 외국인 학습자 역할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것을 지양하고는 있으나 해외에서 수강하는 학생들 중 여러 사정으로 국내 입국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몸이 불편한 수강생도 있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동영상 제출도 가능하다. 동영상 촬영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직접 섭외해 수업을 진행한 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생 없이 수업하는 모습만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모의수업 준비 단계에서 수강생들은 교안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교재도 직접 제작을 하고, 모의수업 당일까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담당 교수와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모의수업은 K사이버대학교 건물에서 2주간 진행되었으며, 담당 교수 1인이 모든 수업을 참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한국어 교육 전문가 4인<sup>6)</sup>을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1인당 15분에서 20

- 
- 5) 연구자는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강생들이 모여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2학기에는 4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 한 단원 전체의 수업을 나누어 진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은 서로 협업이 잘 진행될 경우 모의수업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지만 협업이 힘든 경우에는 제대로 된 모의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수강생 간의 갈등도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15년 1학기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해 수업을 시연하게 했는데, 협업과 관련된 갈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강생 개인이 모의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수월했지만 실제 모의수업의 완성도는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수업에 대해 잘못 이해한 수강생들이 있어도 시연 전에 이것을 확인하고 수정할 기회가 없었으며, 팀별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교수 방법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 6) 한국어 교육 전문가는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한국어 교사들로 한국어 교육 능력과 수업 능력, 학생 관리 능력 등을 고루 점검하



분정도의 시간이 주어졌고, 자신이 선택한 주제의 수업을 시연하였다.

모의수업 평가는 Crookes, G. (2003)의 분류 기준에 따라 수업의 내용(목표, 단계, 활동, 언어 환경, 교재 및 부교재 활용, 교사 발화 등), 수업의 운영(수업 활동 지시, 기회 부여, 오류 수정, 학습자에 대한 반응 등), 교사의 태도 및 특성(발음, 말의 속도, 억양, 복장, 표정, 매너, 시간 관리, 열정 등)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모의수업 시연이 모두 끝난 후에는 수강생 각 개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형식의 모의수업 평가표를 제공하였다. 평가표에는 수강생이 진행한 한국어 수업에서 수업의 내용과 절차, 실제 운영 및 교사의 태도 등을 고르게 관찰한 내용을 작성해 수강생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선점이 무엇인지 기술하여 자가 점검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4년 2학기 ■■■ 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 실습**

**모의 수업 평가 보고서**

**장** ■■■■

---

**수업 내용 및 절차**

원칙을 주제로 “-에 있다/없다” 문법 부분을 수업하였습니다.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원치 어휘를 도입해 사용하고 배고랑게 수업을 잘 시작했습니다. 예사 및 설명 단계에서 학습자를 사로잡는 것을 바탕으로 대화문을 편성한 것도 좋았습니다. 다만 예문을 다룰 때, “-에 있다/없다”를 설명하고 있다기보다는 “있다/없다”라는 어휘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조사 “-에”에 대해서는 충분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문을 활용해 형태를 제시할 때는 “형태”라는 다소 전문적인 표현보다는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요?” 같이 공부해요”처럼 조금 학습자에게 이해가 가능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연습 단계를 아주 능숙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다만 연습 단계의 형태적 연습에서 “-에 있다/없다”를 “-다”제로 계속 읽어 숙의적 연습까지 학습자가 구어형이 아닌 “있다/없다”로 말하는 것은 수업이 필요합니다. 최종 연습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

**수업 운영**

교사의 발화, 속도, 수준 모든 면에서 조금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데 집중 부러가 없는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학습자를 계속 격려하여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았습니다. 가지적인 주변 사물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상당의 인상적이었습니다.

2014. 11. 28

관 관 당 당 교 수 김 지 혜

■■■■

<그림 6> 모의수업 평가 보고서의 예

여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섭외하였다.

### 3. 연구 결과

3장에서는 166명의 예비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모의수업에서 그들이 작성한 교안과 시연한 모의수업, 그리고 모의수업 평가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비 한국어 교사 중에는 경력 교사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실력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수강생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수강생들에게서 공통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내용은 교수 활동에 속하는 수업 내용 및 운영 부분과 수강생들의 예비 한국어 교사로서의 태도 및 특성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3.1. 수업 내용 및 운영 분석

예비 한국어 교사의 교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첫째 수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못하고 교안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한국어 경험이 적고 연령이 높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도입에서 연습까지 교안을 보고 읽거나, 중간 중간 교안을 계속 확인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모의수업을 단순히 담당 교수에게 보여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목표만을 달성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둘째, 지식 전달에만 집중해서 자신이 할 말만을 쭉 늘어놓은 후 학습자들에게 활동을 시키지 못하였다. 자신이 준비한 문법이나 어휘 등의 내용을 판서하고 설명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학습자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피거나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을 이해시키고 연습시키는 것은 전혀 실천하지 못하였다. 언어 수업에 있어 교사의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입력이며 자극이 된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훈련도 부족하기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인다.

셋째, 수업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문법이나 어휘의 의미, 형태, 활용을 잘못 전달하였다. 이는 교안 작성 단계에서 이미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이다. 특히, 한국어 모어 화자를 위한 문법책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아무런 고민 없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내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수업에 임하는 것이다.

넷째, 연습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활동을 지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표현하지 못해 학습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단계에서 교사들의 공통적인 발화는 ‘자, 이제 친구랑 해 보세요.’이다. 그런데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전혀 설명 없이, 이와 같은 지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가족 있어요? 가족 이야기 친구랑 해 보세요’, ‘여러분 가방 있어요? 물건 있어요? 친구랑 이야기하세요.’ 등과 같은 유형의 지시를 받았을 때는 모어 화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활동을 단계별로 예시와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명확한 지시를 잘 하지 못했다.

다섯째, 목표 없는 부교재 활용이 자주 나타났다. 부교재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나, 학습한 내용을 연습하기 위한 도구로 시의 적절하게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카드의 그림이 너무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문화적인 암시를 담고 있는 경우, 글자 카드의 글자가 너무 작은 경우, 글자와 그림이 같이 나와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부교재 제작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교사 스스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부교재를 활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휘의 의미 확인을 하는 단계인데 글자 카드를 활용하고, 문법의 형태 연습을 하는 단계인데 그림 카드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밖에도 최근에는 동영상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길거나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동영상 자료들을 쓰는 것도 예비 한국어 교사의 모의수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여섯째, 판서를 미리 계획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진행을 하거나, 학습자가 알아보기 힘든 글자체나 글자 크기로 판서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판서는 예비 한국어 교사들의 모의수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판서는 교재의 하나로, 학습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판서는 학습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정서법에도 맞아야 한다. 그러나 예비 한국어 교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흘려 쓰거나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거나 정서법에 맞지 않게 판서를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교사의 발화를 들으며 수업을 하지만 듣기를 통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판서된 내용으로 추측하고 확인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의 판서는 교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 3.2. 태도 및 특성 분석

일반적으로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나 자질은 비슷할 것이나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인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태도나 자세 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론 강의에서도 자주 언급이 된다. 그러나 실제 모의수업에 참여하는 예비 한국어 교사들 가운데에는 기본적인 태도나 자세가 부족한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나 억양이 자연스럽게 못하고 너무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발화를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발화

가 자연스럽게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특징적인 발음이나 억양이 있고, 버릇처럼 사용하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이 외국인 학습자들이 들었을 때 의미 이해에 방해가 되거나 불편한 경우도 있다. ‘어, 어’, ‘그, 그거’ 등의 간투사를 반복하거나 음절 끝을 계속 올리거나 내리는 것 등 다양한 예들이 있었다.

둘째, 학습자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하거나 한 곳만을 고정해서 바라봤다. 교사 교육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인데,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지식 전달에만 집중하는 예비 한국어 교사들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사는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을 전달하게 되고, 학습자들을 두루 살펴보지 못한다. 이는 언어 수업에서는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셋째, 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고정된 자세로 일관하였다.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교사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고정된 자세로 발화를 이어나가면 학습자들은 교사의 발화에만 지나치게 집중을 해야 하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생해 수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넷째, 권위적인 말투 혹은 지나치게 어린 아이 같은 말투를 사용하였다. 예비 한국어 교사들은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마치 그들이 나이도 어리고 지적 수준도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하 관계로 보고, 권위적인 표정과 태도로 학습자들을 주도하거나, 지나치게 유아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성인들이 대부분이다.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게 교사말을 조절한다는 것은 교사 발화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다는 데에 초점이 있지, 태도에 있어 권위적이거나 유아적인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섯째, 질문을 하고 학습자의 대답이 늦어지면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말해 버리거나 문장을 대신 완성해서 말해 줬다. 학습자들이 교사의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와 형태로 말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데에는 학습자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교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대답을 해 버리면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발화할 기회를 놓치는 것과 함께 자신감이나 의욕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습관적으로 학습자가 말을 시작하면 뒤에 나올 문장을 완성해 말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학습자가 자꾸 단어 위주로만 발화를 하고, 문장을 완성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태도는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3.3. 모의수업 분석 결과

예비 한국어 교사들의 모의수업을 분석한 결과, 무엇보다 교사 스스로 한국어 수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로 보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수업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세련되게 수업을 잘 진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학습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송금숙(2014:37)은 최종 학습 목표를 학습자들에게 단원의 시작부터 분명히 숙지시킴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학습 성취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는 백워드(backward) 교수 설계 모형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분절된 단원 하나를 가르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전체 흐름을 계속 생각하게 함으로 달성해야 할 지점을 학습자가 인지하게 하면 교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비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차시에 학습할 한 단원이 아니라 전체 목표 속에서 지금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

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비 한국어 교사들은 언어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해 보였다.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지 지식이나 규칙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다. 지식이나 규칙을 전달하는 데에 급급한 예비 한국어 교사들은 결국 학습자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교사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물론 한국어 수업에는 교육 목표와 함께 교육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만 하고서는 수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비 한국어 교사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어 학습 경험이나 방법 등이 예비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문법 번역식이나 암기 위주의 학습법에 익숙한 예비 교사들은 한국어 수업도 그러한 수업으로 이해를 했으며,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법에 익숙한 예비 교사들은 한국어 수업도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예비 한국어 교사들은 학창시절의 비슷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어, 언어 수업으로서의 한국어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고정관념이나 틀을 깨는 것도 쉽지 않았다.

예비 한국어 교사는 평소 자신의 말투나 표정, 손짓이나 몸짓 등에 대한 스스로의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교사의 발화나 몸짓 언어를 통해 의미를 전달 받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게 된다. 교사의 발화나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을 때 학습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학습자들의 발화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어 실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의수업 관찰을 통해 본 예비 한국어 교사들의 태도는 관찰자가 있다는 점 때문에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발음이나 입모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청중들을 대하거나, 몸의 움직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 교사로 현장에 나

가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며, 능숙한 한국어 교사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보면서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한국어 교사는 권위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학습자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학습자의 발화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예비 한국어 교사들 가운데에는 현직 교사로 일하고 있거나 기존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경험을 잘 활용하여 능숙하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 교육의 시작은 유연성, 열린 자세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 4. 한국어 모의수업에 대한 제언

최근의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이나 모의수업에 대한 연구(진정란 2014, 기준성 2015)를 보면, 과목의 절차나 구성, 수업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원 양성에 있어, 모의수업의 틀을 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 및 내용과 같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공적인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과 한국어 교육 기관이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여, 예비 한국어 교사들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실에 대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에서 모의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첫째, 한국어 교사로서의 직무 적성을 확인하는 단계와 인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 외국인을 많이 만나니까 재미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접근이 아니라 한국어 교사로서의 직무 적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인성 역시 한국어 교사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앞서 분석한 내용에서 살펴본 예비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 수업의 운영은 물론이고 태도나 자세를 개선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령·서은희(2014)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비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직 인성의 구성 요소를 추출하였는데, 사명감, 학생에 대한 열정, 교육적 신념이 공통적인 사항이었다(7). 이는 예비 한국어 교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스스로 이러한 구성 요소가 자신에게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교안 작성 전후와 모의수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 차례, 모의 수업 시작 전과 후 등의 단계에서 자신이 준비한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

7) 예비교사 교직 보편적 인성 구성 요소(김경령·서은희, 2014: 122)

학자 \ 요인	사명감	학생에 대한 열정	친절	배려	교육적 신념	자신감	유머 감각
University of Illinois	○	○	○		○	○	
Symonds(1947)	○	○			○	○	
Witty(1947)	○	○	○	○	○		○
McEwan(2002)	○	○		○	○		
Thompson et al.(2004)	○	○			○		○
Carr(2007)	○	○			○		
Stronage(2007)	○	○		○	○		○
Bhargava & Pathy(2011)	○	○	○	○	○	○	
Khodabakhshz-adh & Shirvan(2011)	○	○		○	○	○	
조영남(2000)	○	○	○		○	○	○
홍기칠(2006)	○	○	○	○	○	○	
안길훈(2007)	○	○	○	○	○		○
김경령(2013)	○	○	○	○	○	○	

지, 한국어 교사로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확인 하도록 하는 점검표가 있어야 한다. 예비 한국어 교사들의 공통적인 불안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수업을 잘할 수 없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오직 문법이나 어휘 지식에만 집중하여, 한국어 수업의 참 목표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어 지식만큼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과 함께, 학습한 내용으로 학습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이다. 이러한 목표를 잊지 않도록 점검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수시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가 점검표는 수업의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으나 보고서,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자신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업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PBL(문제 기반 학습)<sup>8)</sup> 등의 교수방법을 활용한 워크숍을 통해 예비 한국어 교사들이 한국어 수업은 물론이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동료와의 협력 활동을 통해 토론하고,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모의수업 분석에서 본 예비 한국어 교사들의 공통된 문제의 원인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거나 한국어 교육 현장에 대한 선입견 혹은 무지 등에 있었다. Richards C. & Thomas S.C.(2005:35)에서는 워크숍을 통해 예비 교사들

---

8)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은 개인학습 보다는 동료학습자들과의 협동학습이 강조된다. 따라서 사회적 배경에 따른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환경에서 활성화되며, 학습자의 정보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 비판적 사고력,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BL은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나 사례를 통해 학습자가 개인적인 학습활동 또는 소집단 협동 학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구성된 학습방법이다. PBL은 1.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2.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간에 공동으로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며, 3.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동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박수홍·정주영, 2014)

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신념 및 가치관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고,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워크숍을 1회 정도 운영하면서, 소통 능력을 배우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고, 협업을 하며 학습자를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실습은 한국어 교사로 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자신의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모의수업은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교안을 작성하여 실제 학습자들을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해 봄으로써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미리 점검해 보고, 대비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모의수업은 일회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비 한국어 교사 스스로도 최대한 문제없이 넘어가야 할 하나의 단계로만 보고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모의수업의 본질과 목표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직무 적성 및 인성 검사, 자가 점검표, 워크숍 등의 활동을 통해 예비 한국어 교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한국어 교사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어 교사에 대한 기대치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에 대한 내용적인 지식에서부터 언어 교사로서의 기술과 태도 등 모든 방면에서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교원을 양성하면서 충분히 훈련되지 못한 교사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 교육 기관과 교사 간의 갈등을 비롯해 여러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교사론에 대한 연구가 한국어 교사와 관련된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안들을 제안할 것이지만, 본고는 예비 한국어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예비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모의수업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찾아보았다. 온라인 과정생을 대상으로 한정해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통틀어 가장 다양한 배경의 예비 한국어 교사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 온라인 과정이라고 본다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연구에서 제언한 예비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 적성 및 인성 검사, 자가 점검표, 워크숍 등의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살피는 것은 후속 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강숙희(2012). 모의수업 활동에 기반한 예비교사들의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 <교육방법연구> 24-1호, 한국교육방법학회. 209쪽~228쪽.
- 김경령·서은희(2014). 예비교사의 교직인성 자기점검도구 개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1-1호, 한국교원교육학회. 117쪽~139쪽.
- 김선정·방성원·이동은(2010). 국외 한국어교원 (재)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김유미(2009).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의 교수요목과 교육방법연구: 한국어 교육전공 학부과정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 16-2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335쪽~384쪽.
- 기준성(2015). 한국어교육실습 내용과 방법에 관한 학습자 인식 연구: 모의 수업·강의 실습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2-2쪽, 한국언어문화학회. 1쪽~22쪽.
- 나승일 외(2012).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실습 가이드』. 경기: 교육과학사.
- 박수홍·정주영(2014). 『술술 풀리는 PBL과 액션러닝』. 서울: 학지사.
- 손상미(2010). 한국어교육실습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금숙(2014). 성취 기준 기반의 한국어 교수 설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향근(2012). 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5호, 민족어문학회. 53쪽~75쪽.
- 육효창(2013). 재외 한글학교 교사 사이버연수 과정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52호, 이중언어학회. 283쪽~315쪽.
- 이정숙(201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삼환 외(1998). 『수업 관찰과 분석』. 서울: 원미사.
- 진정란(2011).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을 적용한 한국어 교원 양성 방안, <외국어교육> 25-2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83쪽~100쪽.
- 진정란(2014).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사례 분석 연구: 사이버대학 교과목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 28-2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7쪽~232쪽.
- 채완(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인문과학연구> 12호, 인문과학연구소. 243쪽~268쪽.
- 최정순(2012).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Crookes, G. (2003). *A Practicum in TESOL: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Teaching Practic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on, Karen E. (2009).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 a socio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 Routledge.
- Korthagen, F. A. J. (2001). *Linking practice and theory : the pedagogy of realistic teacher education*. Mahwah, N.J. : L. Erlbaum Associates.
- Richards, Jack C. & Nunan, David. (1990).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ack C. & Farrell, Thomas S. C. (2005).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language teachers : strategies for teacher learning*.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jnryb, Ruth. (1992). *Classroom observation tasks : a resource book for language teachers and trainer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지혜(Kim Jihye)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609-78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전화번호: 010-9229-0729

전자우편: benjoin34@bufs.ac.kr

66 이중언어학 제61호(2015)

접수일자: 2015년 10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5년 12월 20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23일